



태풍이 지나간 흔적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핏돌던 6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 있던 어선이 전복되는 피해를 입었다(사진 맨 위).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 월파피해를 입은 농경지(두 번째). 태풍이 물러간 뒤 파손된 해녀 밭의 장 시설물을 치우고 있는 표선면 세화리 해녀들(세 번째)과 중장비가 동원돼 정비중인 서귀포 해안도로(맨 아래). 강희만·이상국기자

“근거없는 문제 제기는 논쟁만 무한 반복”

4·3 재심청구 대상자 중 4명 '사상 검증' 논란 지법, “검찰 주장 의문”... 6일 재심 개시 결정

제주4·3희생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상 검증' 논란을 촉발시켰던 검찰이 결국 체면을 구겼다. 법원이 검찰을 향해 '해묵은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4·3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68명 중 4명(군사재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의 근

거로 '파괴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4명을 규정하면 남로당 핵심 간부이며, 월북 후 남파 간첩으로 활동한 김민학(1922년생) ▶북촌리 남로당 조직 부장으로 경찰 후원회장을 살해한 이양도(1927년생) ▶한림읍 대림리의 폭도대장 임원전(1920년생) ▶형무소 수감 중 월북해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중국으로 탈출한 문옥주(1919년생)가 된다. 근거는 대부

분 보수 성향 언론사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 사유로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서 희생자의 재심 청구를 보장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객관적 근거와 자료에 의해 이뤄졌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 점 ▶특별법 개정 취지가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인 점 등을 꼽았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검찰은 '더 이상의 논쟁을 종식하자'는 취지로 희생자 4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

다. 하지만 근거와 법적 타당성이 없는 문제 제기는 되레 논쟁을 무한 반복시킬 뿐"이라며 "특히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울 뿐더러 작성 주체도 명확치 않다. 여기에 (학술적으로) 기억의 부정확성과 오류 가능성까지 존재해 오히려 검찰의 주장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검찰은 만약 일부 희생자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심의 신뢰성 상승은 물론 나머지(선량한) 희생자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다수의 행복은 소수의 희생으로 얻을 수 없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라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8·9살때 '제주4·3 참상' 목격한 남원 노인들의 기억

“낮엔 토벌대, 밤엔 무장대에게 희생”

6일 군법회의 직권재심서 70여년 한 맺힌 증언 지난 3월 첫 선고이후 이날까지 총 310명 무죄

직권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이 300명을 돌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310명이 억울함을 풀 것이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30명 모두 행방불명 혹은 사망해 유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유족들이 70여년 묵혀둔 얘기를 꺼내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9살이던 1949년 당시 아버지 김기생씨가 군인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김경규씨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와 보리밭에서 거름을 주고 있었는데, 군인들의 총성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며 "할아버지가 '도르라(달려라)'고 말했다고, 아버지와 나는 하천까지 도망간 뒤 들 틈에 숨어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돌아와보니 집이 불에 타 아무 것도 없었다. 밤에는 무장대가 마을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달기도 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면서 "토벌대와 무장대의 화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 산에 들어

가 생활을 했고, 이후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지서에 찾아가 아버지가 군법회의에 넘겨져 행방불명됐다"고 증언했다. 10살 터울 친형을 잃은 고병호씨는 "1948년 남원중학원 3학년이 재학 중이던 형이 느닷없이 찾아온 군인들에게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다. 당시 8살이라 생생히 기억한다"며 "형을 잃은 뒤에는 방화와 양민 학살을 일삼은 무장대까지 기습을 부리면서 낮에는 숲이나 바다에 숨고, 밤에는 답을 쌓고 보초를 서는 생활을 하며 가족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증언이 끝난 후 무죄를 선고한 장 판사는 “곧 추석인데, 예년보다 덜 서러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송은범기자

4·3군법회의의 피해자 2명 '청구재심'으로 무죄

제주4·3 군법회의의 피해자가 직권재심이 아닌 '청구재심'으로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제주4·3희생자이자 군법회의의 피해자인 김병두, 김강일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강씨의 유족은 검찰이 진행하는 '직권재심'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딸 김춘심(75)씨는 “내가 3살 때인 1949년 아버지가 군경에 끌려가 형무소 생활을 했다. 이후 아버지는 출소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번듯한 직업조차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어 “막내 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빨갱이'로 몰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지 모른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강씨의 아들 강순호씨도 “아버지 도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로 돌아왔지만, 사람은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술만 마시다 돌아가셨다"며 “현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만 100살이 넘어 아들인 내가 대신 재판에 출석했다. 아버지 자손은 어느덧 28명인데, 모두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씩음, 균형형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 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향)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친해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일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친해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 (신규 0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사전예약 | 탐나는봉, 선경, 주문생산 |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품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1번길1(수산리735)